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025, December. 13(5): 18-27
pISSN: 2288-6079 / eISSN: 2635-6538
https://doi.org/10.33615/jkohs.2025.13.5.18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영숙‡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The Impa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Young Sook Kim‡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the aim of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clinical training with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and developing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students in their career decisions.

Methods: The study involved second grade, third grade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who completed clinical training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between July 22 and August 23, 2024.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Google Forms.

Results: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was higher in students with higher grade levels, better academic performance, and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0.001). Among the students,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oreov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ppeare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indicating that students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clinical experiences tended to demonstrate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p<0.001). Clinical performance did not affect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Howev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p<0.001).

Conclusions: Positive clinical experiences that enhance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skills can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pride and confidence as dental hygienists, facilitating clearer career decision-making. Thus,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and foster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increases student satisfaction may contribute to enhance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Keywords Career decision level,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s

Received on Aug 21, 2025. Revised on Sep 27, 2025. Accepted on Oct 24, 2025.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ys@swc.ac.kr)

본 연구는 2024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서론

치위생(학)과의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의 임상실무능력 향상과 치과위생사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인 지식을 통합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강의실에서 습득한 지식이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환자를 대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통한 기술 습득과 경험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취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불안과 걱정 등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

유와 김[2]은 임상실습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opyright ⓒ 2025 by the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KOHS).

서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표준화된 임상실습의 운영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습기관의 새롭고 불편한 환경에 접하여 치과의료인력과의 대인관계,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전공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김[3]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임상실습에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임상실습 경험으로 위축되거나 좌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기능적인 일만 반복하는 것이 임상실습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치위생(학)과 교육기관 및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장에서 임상실습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치과위생사는 부족한 상태이며, 환자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진료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1]도 나타나고 있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observation)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수업 전환이 일어났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격감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면서[4],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신규 치과위생사의 임상수행능력의 부족은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상실습의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결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거나 회의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신과 안[5]은 임상실습이 만족스러우면 전공과 학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학업 수행을 지속하지만, 불만족스러울 경우 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휴학이나 자퇴 등 중도탈락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진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며 이는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은 심리학이나 교육학, 진로상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학, 미래 방향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6].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고, 전공지식 습득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를 준비한다. 그러나 타 전공학생과 달리 입학과 동시에 이미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이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군 내에 다양한 진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부족한 고민은 졸업 후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이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송 등[7]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 적응도와 직업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박과 장[8] 역시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이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 진로를 결정하였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는 기본적으로 치과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하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한 임상수행능력 향상으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율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 현재의 만족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부분은 현장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1], 현장적응도와 직업만족도[7],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9,10] 등이 있으며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직업가치관과 자기효능감[6,11] 등 다수가 있으나 정작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문은 매우 드물다. 또한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며, 장[12]의 임상 역량에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자기효능감과 구직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의사 결정유형 등을 확인한 연구[6,8,9]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형성

하고 이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치과병・의원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한 S시 H대학, K도 S대학, G대학, K도 H대학 4개 대학 치위생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인과모형의 안정적 추정을 위하여 최소 350명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은 본 연구의 목적을 해당 대학의 실습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전 승낙을 얻은 학생에게 구글 폼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350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부적절한 12부를 제외한 338부(91.5%)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competency)은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임상 상황에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3].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인증 기준을 근거[13]로 작성하였는데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증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 4.18.]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일 2009.1.1.]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시행일 2009. 1. 1]에 의거하여 작성된 핵심치위생역량 평가 중 11개 문항의 임상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수행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876이었다.

2) 임상실습만족도

치위생과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는 조와 강[1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실습기관 3문항, 실습환경 2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2문항, 실습기간 3문항에 대한 만족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857이었다.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치위생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5].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진로결정 7문항, 미결정 6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진로결정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10~13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 채점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α 값은 0.860이었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원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One-way ANOVA 및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01$을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치위생(학)과로 총 4개 대학이었으며 2학년이 58.6%(198명), 3학년은 41.4%(140명)이었다. 연령은 21세가 182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2세가 54명(16.0%), 23~25세가 50명(14.8%) 순이었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3.5~3.9가 104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도 62명(18.3%)으로 많았으나 2.9 이하인 학생도 26%(80명) 차지하였다.

실습기관은 치과의원에서만 실습한 경우가 66.3%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의원에 이어 치과병원에서 실습한 경우가 19.8%, 치과병원에서만 실습한 경우는 13.9%이었다.

임상실습지도자는 주로 치과위생사(89.7%)이었으며 치과의사가 실습을 지도한 경우(5.03%)도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지도한 경우(4.14%)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실습 지도에 관한 만족도는 만족이 40.2%, 보통이 44.1%로 거의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지도에 관한 불만족 원인을 복수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무성의하고 무시하는 태도(21.3%)나 무관심(22.1%), 성의없는 실습일지 점검 등의 불친절(23.5%)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보통이 각각 47.0%로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61.5%(208명)로 가장 높았고 주위 사람의 권유(17.2%, 58명),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13.0%, 44명), 입학성적에 맞아서(5.33%, 18명)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College	S college	132(39.1)
	G college	35(10.4)
	C college	80(23.7)
	H college	91(26.9)
Grade	2nd	198(58.6)
	3rd	140(41.4)
Years	21 years old	182(53.9)
	22 years old	54(16.0)
	23~25 years old	50(14.8)
	26~29 years old	24(7.10)
	30 years old or older	28(8.28)
Average grade	2.9 or lower	88(26.0)
	3.0~3.4	84(24.6)
	3.5~3.9	104(30.8)
	4.0 or higher	62(18.3)
Training institution	Dental clinic	224(66.3)
	Dental clinic & dental hospital	67(19.8)
	Dental hospital	47(13.9)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Dentist	17(5.03)
	Senior Dental Hygienist	53(15.7)
	General Dental Hygienist	250(74.0)
	Nursing assistant	14(4.14)
	Don't know	4(1.18)
Satisfaction with clinical supervision	Satisfaction	136(40.2)
	Moderate	149(44.1)
	Dissatisfaction	53(15.7)

<Table 1> Continued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Reasons for dissatisfaction*	Lack of sincerity and dismissive attitude	33(21.3)
	Indifference	32(22.1)
	Non-work-related instructions	12(8.28)
	Long working hours	9(6.21)
	Lack of rest areas such as changing rooms	25(17.2)
	Unkindness	34(23.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9(47.0)
	Moderate	159(47.0)
	Dissatisfaction	20(5.92)
Reasons for choosing the major	Good job prospects	208(61.5)
	Recommendation from family or acquaintances	58(17.2)
	Fit with entrance score	18(5.33)
	Match with aptitude and interests	44(13.0)
	Convenient location	4(1.18)
	Positive impression from dental treatment experiences	6(7.78)
Total		338(100.0)

*Multiple responses

<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Variabl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ean ± SD	t or F	*p*
Grade	2nd	2.94 ± 0.68	9.514	.002
	3rd	3.18 ± 0.75		
Years	21 years old	3.0 ± 0.70	2.398	.050
	22 years old	3.0 ± 0.76		
	23~25 years old	3.0 ± 0.63		
	26~29 years old	3.3 ± 0.59		
	30 years old or older	3.3 ± 0.92		
Average grade	2.9 or lower	2.81 ± 0.72	6.337	.000
	3.0~3.4	3.00 ± 0.70		
	3.5~3.9	3.24 ± 0.65		
	4.0 or higher	3.09 ± 0.77		
Training institution	Dental clinic	2.9 ± 0.68	9.064	.000
	Dental clinic & dental hospital	3.3 ± 0.66		
	Dental hospital	3.3 ± 0.8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3.2 ± 0.7	12.822	.000
	Moderate	2.9 ± 0.6		
	Dissatisfaction	2.8 ± 1.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및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학년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3학년이 3.18±0.75점으로 2학년(2.94±0.68점)에 비하여 임상수행능력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 학생(3.09±0.77점)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치과의원에서 실습한 경우에 비해 치과의원을 실습하고 치과병원을 실습(3.3±0.66점) 하거나 종합병원에서 실습한 경우가 3.3±0.83점으로 임상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3.2±0.7점) 임상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 0.001).

3.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연령 역시 임상실습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업성적 역시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습기관 역시 치과의원이나 병원, 대학병원(종합병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학년과 연령, 학업 성적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실습기관 역시 임상실습만족도와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4.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임상수행능력과 진로결정 수준은 r=0.079, p=0.197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의 상관관계(r=0.340, p<0.001)를 나타내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r=0.395, p<0.001)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r=0.383)도 상당히 높아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4>.

<Table 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 ± SD	t or F	p
Grade	2nd	198(58.6)	1.8 ± 0.71	9.289	.002
	3rd	140(41.4)	1.6 ± 0.58		
Years	21 years old	182(53.9)	1.8 ± 0.67	1.358	.248
	22 years old	54(16.0)	1.8 ± 0.67		
	23~25 years old	50(15.8)	1.6 ± 0.58		
	26~29 years old	24(7.10)	1.7 ± 0.81		
	30years old or older	28(8.28)	1.6 ± 0.63		
Average grade	2.9 or lower	88(26.0)	1.9 ± 0.70	3.370	.019
	3.0~3.4	84(24.6)	1.6 ± 0.65		
	3.5~3.9	104(30.8)	1.7 ± 0.67		
	4.0 or higher	62(18.3)	1.6 ± 0.59		
Training institution	Dental clinic	224(66.3)	1.8 ± 0.69	4.273	.015
	Dental clinic & dental hospital	67(19.8)	1.5 ± 0.59		
	Dental hospital	47(13.9)	1.7 ± 0.6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59(47.0)	1.5 ± 0.64	25.990	.000
	Moderate	159(47.0)	1.9 ± 0.60		
	Dissatisfaction	20(5.92)	2.4 ± 0.67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	Career decision level r(*p*)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p*)	Major satisfaction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	0.340 (0.000)	-0.314 (0.000)	0.383 (0.000)
Career decision level		1	0.079 (0.197)	0.395 (0.000)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	0.074 (0.212)
Major satisfaction				1

<Table 5> The effects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Models	B	S.E.	β	t	*p*
constant	-0.996	0.666		-1.496	0.136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0.266	0.170	0.077	1.564	0.13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752	0.183	0.473	9,592	0.000

5.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임상실습만족도(β=0.473)가 임상수행능력(β=0.077)에 비해 진로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01)<Table 5>.

Ⅳ. 고찰

최근 지속적인 치위생(학)과의 신・증설로 인하여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임상수행능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양질의 치과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12].

임상수행능력의 목표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상에서의 능숙한 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임상수행능력은 학생이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16], 임상실습은 이러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임상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향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의 교육적 효과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습 만족도에 따라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실습환경이 열악하거나 지도의 질이 낮은 경우, 실습기간 중 받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 실습과 무관한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은 실습 이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설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 결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9].

임상실습만족도는 학생이 실습기간 동안 경험한 실습 환경과 임상업무 수행의 적절성, 실습 내용의 질이나 실습지도자의 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반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와 의사소통, 대인관계 만족도[1], 직무스트레스[17], 현장적응도[7]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습 중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임상 상황과 환자 대응, 그리고 실습기관 스텝과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직무적합성과 진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이나 실습 지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확신을 갖고, 치위생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이 결과는 이[1]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학년과 연령, 학업 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습기관 역시 임상실습만족도와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본 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468). 이는 임상실습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적 능력 자체보다는 학생 개인의 진로 인식이나 가치관, 또는 사회적 기대 등의 외부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인 성 등[18]의 현장실습 전·후에 대한 만족정도와 실습 후 진로의사 및 행동과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임상수행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수하였으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것은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학생이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을 의미하며 실습내용이나 실습 환경 등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실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실습환경이나 내용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실습이 자신의 수준에 비해 단순하거나 반복적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습 지도자의 태도나 피드백 부족, 실습 기관의 환경 문제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 환경과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기대 수준과 부합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반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r=0.340, p<0.001)를 보여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임상실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송 등[7]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일수록 졸업 후 현장 적응도와 직업만족감이 강화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강화되어 진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상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습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지도자의 체계적인 피드백 제공, 학생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 기회의 확대,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학생들의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고 실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강화되어 진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임상실습의 질과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임상실습이 단순한 학습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형성 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위생(학)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실습 운영이 필요하다. 실습지도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문성 제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기관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실습 전·후의 진로상담 및 피드백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치과위생사의 직업관을 인식하고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치과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경험이 직업 정체성과 진로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3학년이 3.18±0.75점으로 2학년(2.94±0.68점)에 비하여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 학생(3.09±0.77점)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3.2±0.7점) 임상수행능력이 우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01).
2.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r=-0.314)를 보여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r=0.395, p<0.001)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01).
4.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REFERENCES

1. Lee JY: Factors influencing dental hygien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2(2): 25-31, 2024. DOI: 10.33615/jkohs.2024.12.2.25
2.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1):62-69, 2016. DOI: 10.17135/jdhs.2015.15.2.182
3. Kim SK: Study on clin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9(6):1037-1046, 2019. DOI: 10.130655392/jksdh.20190089
4. Doe YJ, Min HH: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2(1): 43-48, 2024. DOI: 10.33615/jkohs.2024.12.1.43
5. Shin HT, An HJ: The experience of the stop-out of fe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3):165-175, 2014. DOI: 10.12934/jkpmhn.2014.23.3.165
6. You EJ: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profess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3(1): 8-13, 2025. DOI: 10.33615/jkohs.2025.13.1.8
7. Song HJ, Choi EU, Hong SJ: The adap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according to their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1):114-122, 2023. DOI: 10.33615/jkohs.2023.11.114
8. Park JH, Jang KA: The association between awareness of field trai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after field train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6(2): 41-46, 2018. DOI: 10.18108/jeer.2018.21.1.44
9. You EJ, Jung SJ, Min HH: The impa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experiences of rude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ransition shock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3(2): 79-84, 2025. DOI: 10.33615/jkohs.2025.13.2.79
10. Kang HJ, Lee E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0(3): 18-25, 2022.
DOI: 10.33615/jkohs.2022.10.3.18

11. Lee YH, Lee SY: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elf-effica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2(4): 45-54, 2024.
DOI: 10.33615/jkohs.2024.12.4.45
12. Jang KA: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 Convergence Society 6(6):35-42, 2015.
DOI: 10.15207/jkcs.2015.6.6.035
13. Kim JY, Kim YS, Jung SH, Shin JW: The necessity for the Korean dental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6): 789-94, 2014.
DOI: 10.13065/jksdh.2014.14.06.789
14. Cho KJ, Kang HS: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1984.
DOI: 10.4040/jnas.1984.14.2.63
15. Osipow, S.H., Carney,CG., & Barak, A.: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233-243, 1976.
DOI: 10.1016/0001-8791(76)90081-6
16. Doe YJ, Min HH: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2(1):43-48, 2024.
DOI: 10.33615/jkohs.2024.12.143
17.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6(1):62-69, 2016.
DOI: 10.17135/jdhs.2015.15.2.182
18. Sung MK, Hwang SH, Jang KY: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behavior and the pre-/post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field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2):271-281, 2017.
DOI: 10.13065/jksdh.2017.17.02.271